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2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시작하는 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없겠는가?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이룰 방법이 만세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이미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는 구원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심히 좋은 창조의 상태가 손상을 입었을 때에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로 발표해 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 그곳에 넉넉히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방법을 성경에서 들어보자.

1. 현재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되고 있다.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다. 이것은 모두 과거형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이미 다 죄를 지은 존재들이라는 말이다. 이 세상 맨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이미 죄인인 것이다.

[롬6:23^{상단}] 죄의 삯은 사망이요.

[히2: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죄와 사망의 법 - 이것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망이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종으로 매여 있다. 이 사망의 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 이것이 죄이다.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사죄를 깨닫는데 필요하다.

2. 그런데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롬5:19^{상단}]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창2:16,17]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3:6, 9]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 이곳 창세기 2장, 3장의 명하여 라는 말의 원어는 “차와(מַצְוָה)”인데 이것은 계명이라는 말의 동사형이다. 명사 계명은 “미츠와(מִצְוָה)”이다. “명령”이라고 번역되었다.

[삼상15:22,23]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므로 성립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상태가 사망이다.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 려워하노라.

-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존속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거절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창조주를 거절하고 창조주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이 되며 창조주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망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죄는 사망이 된 그것이다.

3.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 없어진 것과 같이 되었다.

[엡2:1^{상단}]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고전15:22^{상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창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막12: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59:1,2]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 사람은 죄를 지어 죽었으므로 산 자의 하나님이신 분과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너는 흠”이라고 하셨다. 흠은 사람을 창조한 재료이다. 그러므로 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 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곧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4.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만 한다.

[사45:18] 여호와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115:16]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아름다운 땅에 충만하여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이었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곧 사망을 대속하셔서 죄를 처리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다.

[롬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일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 롬3:25의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인데 속죄소/시은좌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 히9:5에는 속죄소라고 번역되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시고 대속죄일에는 희생의 피를 속죄소 뿔에 발라서 속죄를 이루게 하였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

[고후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5:18,19]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골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룯기는 대속의 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여기 “기업 무를 자”라는 말은 고엘(גּוֹאֵל)인데 대속할 자 라는 뜻이다. 이 말이 11번 나온다(2:20, 3:9,12,13, 4:1,3,4,6,8,14). 이 말은 “기업을 문다”는 동사 가알(גָּאַל)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은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 자체가기 때문이다. 그가 인간을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죽을 그 죽음을 처리하신 것이다.

6.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속으로 인한 회복의 계획을 태초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로 발표해 주셨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이 성경구절에는 1) 구주의 초림 ... 여인의 후손
2) 구주의 고난 ...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함
3) 구주의 승리(부활과 재림) ...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 상함에 다 포함되었다.

[창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 구역(舊譯) 성경에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다.

-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결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인의 의의 옷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표상함.

[창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창6:13-22]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16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

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

● 아벨의 제사나 노아의 방주 등이 모두 대속으로 회복하시는 사업 곧 구속 사업을 발표하신 예들이다. 아벨의 제사는 대속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7.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대속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의 행적을 통하여 발표하신 것이다.

창 12: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좃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다).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였다.

[느9:7,8]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8.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극적으로 표상하는 사건이다.

[요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창22:1-14]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4 제 삼 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히11:17-19]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예수께서 것처럼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이 되실 것을 보았다. 아버지로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경험한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 죄를 대신지고 죽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의 그림자였다.

마치는 말: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과 타락한 지구를 다시 회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대속의 방법을 택하시고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계속 발표해 오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의 사업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을 믿음으로 다 받

아들이자.

그런데 이 대속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성소 제도 및 절기를 통해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계시되었다. 이제 다음 과부터 이것들을 차례로 연구해보자.